

# 서정의 확장과 詩로 쓰는 역사

김 진 희\*

1. 詩로 쓰는 역사의 문학적·역사적 위상
2. 여성의 언어-역사의 탐구
3. 서정-서사의 경계와 시학적 특성
4. 여성 역사의 전망과 고정희 시의 문학사적 의의

## 〈국문초록〉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고정희의 시적 탐구는 문학과 역사에서 여성을 부각시킨 중요한 작업이다. 고정희의 역사시는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로서의 의미와 의의가 있으며, 한편 그 역사가 서정 장르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정과 서사의 경계적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이야기 여성사’ 연작을 중심으로 미학적 특성 및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규명하고 있다.

고정희는 부패한 권력과 오염된 언어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역사 전망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해방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역사가 과거-현재-미래가 대화한다는 점을 작품에 수용하여 다성적 목소리와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다양한 여성 삶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역사가 지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서간체와 장면제시의 서사전략을 사용하여 독자의 정서적 유대감과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작품 안의 인물을 통해 개성과 역사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

\* 이화여대 HK교수

역사와 문학, 서사와 서정의 경계 부분에서 새로운 창조적 힘을 경험하게 한다.

고정희의 역사 시편들은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서 남성 중심의 역사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여성-어머니의 가치라는 삶의 원리에 대한 지향을 통해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적 전망과 상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 고정희, 역사시, 이야기 여성사, 여성-어머니, 서간체, 여성주의 문학

## 1. 詩로 쓰는 역사의 문학적·역사적 위상

고정희 시인은 1983년 시집 『이 시대의 아벨』에 역사를 소재로 한 시 「현대사 연구1」을 게재했고 1986년 『눈물꽃』에는 「현대사 연구 1」을 포함하여 「현대사 연구 14」까지 현대사 연구 연작을 발표했다. 『눈물꽃』에서 ‘문화적 위기와 지성의 뿌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고정희 시인의 관심은 한 사회 문화가 가진 뿌리, 즉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87년 『지리산의 봄』에는 ‘여성사 연구’라는 부제가 붙은 연작 시 6편이 발표되었고, 1990년 『여성해방출사표』에는 ‘이야기 여성사’라는 부제가 붙은 7편의 서사적 장시가 게재되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198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역사 전반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여성’역사의 범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에 대한 고정희의 시작(詩作)은 문학이나 역사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우선 1980년대라는 정치 역사적 현실을 생각할 때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는 시 창작은 폭력적인 정권을 향한 도전의 의미를 지녔다. 특히 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한국 역사학계의 여성사 연구의 수준은 거의 초보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sup>1)</sup>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고정희의 시적 탐구는 문학과 역사에서 여성을 부각시킨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성사는 여성의 시점으로 다시 쓰고, 기존 역사학의 학문적 범주와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학이며 실천적 역사학이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여성사는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탈근대서사, 즉 거대 담론으로서의 역사 서술에 대한 대안 양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근대 역사의 총체성 개념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이론의 폭력을 비판함으로써,<sup>3)</sup> 총체성을 추동해 온 가부장 권력에 대한 비판과 만날 수 있었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보이는 데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가부장적, 식민적, 총체적 담론의 횡포와 그에 대한 투쟁의 흔적을 기록하는 소서사를 통해 과학적 지식과 역사발전의 대서사가 기도해 온 총체성과 그 권력 효과에 대항할 수 있었다.<sup>4)</sup> 고정희의 작품 연구에서 시의 미학적 특성이 1980년대의 반미학주의, 해체시 등과 광범위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논의들이 있는데<sup>5)</sup> 기존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 또 역사 다시 쓰기, 시로

1) 이진옥, 「여성사 연구의 현주소 그리고 희망」, 『역사와 경계』 66호, 2008, 197-198쪽.

2) 가다 러너,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 푸른역사, 2006 참조, 천성림, 「새로운 여성사 : 쟁점과 전망」, 『역사학보』 제 200집, 2008, 131쪽.

3) 마단 사립 외 지음,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현규 편역, 인간사랑, 1994, 160-161쪽.

4)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료타르는 탈근대적 대안으로 소서사라고 부르는 담론 양식들과 이것이 생산하는 서사적 지식을 제안하며 소서사의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소서사는 자기 진술의 진리치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지시적 언술행위가 아니므로 자체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고 지식의 총체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소서사는 보편적 합의에 의해 도달하는 하버마스식의 이상적 언어공동체의 허구성을 지양한다. 료타르의 탈근대 소서사 이론은 여성 언어와 언어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료타르는 여성과 여성해방이라는 통합적 명령어로 여성 주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도 경계한다. (마단 사립 외(1994),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경수 외 지음,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5) 송명희, 「고정희의 페미니즘시」, 『비평문학』 제 9호, 1996, 142쪽.

쓰는 역사 서술의 새로운 형식의 추구 등의 저변에 탈근대적 의식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고정희가 시를 통해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로서의 의미와 의의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그 역사가 서사 장르가 아니라 서정 장르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음 역시 주목해야 할 특성이다. 즉 ‘시’로 쓰는 ‘역사’라는 측면에서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역사의 시화(詩化)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서정장르는 내면을 고백하는 장르이다. 이런 점에서 고정희의 역사 시는 주관적인 정서를 압축적으로 토로하는 내면의 서정을 역사-서사로 확장하여 새로운 시 양식, 일종의 이야기시 - 서술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정시에서 이처럼 서사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서정시 장르의 쇄신, 확대 혹은 현실에 대한 응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또한 역사라는 사실(史實)의 기록이 아니라 ‘시(詩)’라는 창조적 언어로 기술되는 역사를 통해 독자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 관련 시편에 대한 연구는 그간 고정희 시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고정희 시에서 역사 시편이 차지하는 의미나 여성문학과 역사에서 여성의 역사를 재현한 시가 갖는 의의를 생각할 때 이 시편들은 형식적 특성이나 미학, 그리고 그 실천적 의미 등이 독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고정희 시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편들<sup>8)</sup> 중에서 ‘이

6) 고정희 시인의 세계관을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총체적 진리나 이념에 대한 해체와 불신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7) 오성호, 『서정시의 이론』, 실천문학사, 2006, 377쪽.

8) 각 시집에서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작품들의 특성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시대의 아벨』(1983) 「현대사 연구 1-아름다움에 관하여」

내용 : 진정 아름다운 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② 『눈물꽃』(1986) 「현대사 연구 1-14」

특성 : 모든 작품이 부제가 있음

내용 : 1980년대 현실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 당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주를 이룸

예를 들어, 당대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무책임함이 「현대사 연구 2」에 드러나

‘이야기 여성사’ 연작을 중심으로 미학적 특성 및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규명해보고자 한다.<sup>9)</sup>

---

고, 동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일본, 그리고 이와 밀월관계를 갖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현대사 연구 4」에 나타남. 또 당대 군사정권의 독재와 폭력 문제, 언론탄압의 문제를 네로황제의 폭정과 앵무새에 비유하는 것이 「현대사 연구 6」과 「현대사 연구 8」에 나타남. 이외에도 신도시 개발 문제, 북한 고향방문단 등의 첨예한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③ 『지리산의 봄』(1987)

특성 : 작품의 제목 뒤에 여성사 연구 1-6의 부제가 붙음

내용 : 「즈문가람 걸린 달하 - 여성사 연구 1」부터 「반지뿔기부인회 취지문 - 여성사 연구 2」 「남자현의 무명지 - 여성사 연구 3」 「우리 동네 구자명씨 - 여성사 연구 5」등 여성수난사로부터 주체적 여성을 조명하는 데까지 나아감

④ 『여성해방출사표』(1990)

특성 : 『지리산의 봄』(1987)에 실렸던 ‘여성사 연구’ 연작 6편이 재게재 됨  
내용 : ‘이야기 여성사’라는 부제를 붙여 총 이야기 여성사 7편이 장시로 게재됨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엮어 여성의 삶과 역사를 이야기로 재구성함. 이야기 여성사 1-4까지는 서간체의 형식으로 수신자를 제목에 설정함. 한 작품 안에 소재목을 가진 시들이 연작의 형태로 포함됨

이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은 아래와 같음

「황진이가 이옥봉에게 - 이야기 여성사 1」 봄편지, 여름편지, 가을편지, 겨울편지  
「이옥봉이 황진이에게 - 이야기 여성사 2」 요사이 한반도 여자해방, 월나라 여자 서시, 여자를 모르는 남자 셋, 지승문의 딸 어우동, 조선조 공창폐지 반대론  
「사임당이 허난설헌에게 - 이야기 여성사 3」 사임당상이라니 기상천외이외다, 정실부인론을 곡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세가지, 여자는 최후의 피압박계급?, 어즈버 하늘이 낸 시인 난설헌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 - 이야기 여성사 4」 해동단집에 대하여, 삼한삼원(三恨三怨)의 서슬 청초 우거진 골에 푸르렀으니, 여자 제갈공명이 동아시아에서 깃을 치는 이유, 여자해방을 위한 출사표 「정실부인회와 보수대연합 - 이야기 여성사 5」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 - 이야기 여성사 6」 어느 정실부인과 독신녀 이야기,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 놓았는가, 해방전선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 여자가 뭉치면 새 세상 된다네, 새벽에 오기 전에 우리 가야 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 이야기 여성사 7」 대지를 떡감기는 어머니, 칠월 백중날 물맞는 어머니, 외롭다는 말을 쓰지 않는 어머니, 따순 밥 정을 담은 어머니, 씨알들이 최후까지 부를 어머니

- 9) 본고에서 다루는 ‘이야기 여성사’ 연작이 여성역사에 관한 문제의식이 집중된 작품들이다.

## 2. 여성의 언어 - 역사의 탐구

### 1) 해방된 역사와 언어의 상상

언급했듯 고정희의 역사 소재 시편들에 대한 평가는 전체 시세계의 평가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역사에 관한 비판의식과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언어적 실천성을 밝히는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효구는 『여성해방 출사표』에 이르러 여성문제에 대한 시인의 안목이 깊어지면서 구체성이 획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정희가 페미니즘의 핵심 문제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들의 삶과 수난사에서 찾으려 한다고 했다.<sup>10)</sup> 이후 이어지는 연구<sup>11)</sup>에서는 고정희가 여성사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황진이,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에 대한 남성주의적 시각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대비적으로 설명하였다. 정효구의 이 연구는 여성사 관련 작품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고정희 시가 기존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여성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다시 쓰고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한편 송명희의 연구<sup>12)</sup>는 ‘여성언어와 여성미학의 수립’이라는 관점으로 고정희가 정통서정시의 형식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파악한 여성의 삶을 장시나 연작시로 창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여성해방 출사표』가 서간체, 내간체, 패러디 등을 통해 여성 글쓰기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논의한다. 김승희의 연구<sup>13)</sup> 역시 『여성해방 출사표』를 중심으로 여성 글쓰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 시집에서 고정희가 기독교적 민중 주체에서 여성주의적 주체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느님 어머니로, 구어체나 굿거리 리듬, 여성사(Herstory)의 조각보(quilting) 만들기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따라서 이야기 여성사는 세계의 중심부에 위

10) 정효구, 「고정희론 -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1.10, 230쪽.

11) 정효구, 「고정희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인문학지』 제 17호, 1999, 61-81쪽.

12) 송명희(1996), 162쪽.

13)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1999, 148쪽.

치한 여성-어머니의 이야기, 여성사 다시 쓰기, 조선 역사 속의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 등이 언어의 조각보로 만들어진 커다란 기획임을 밝히고 있다.

정통적인 역사 서술은 남성과 남성의 언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여성들은 역사에서 선택적 기억의 희생자로 다만 흔적으로서의 역사로 남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와 언어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어떤 언어로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고려하게 만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언어는 없다. 다만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 자신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가에 대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언어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고,<sup>14)</sup> 고정희의 작품에서도 역시 여성의 경험과 연관된 여성의 문체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들 역시 여성의 독특한 경험과 자의식이 여성 언어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언어적 특성이 남성 중심의 언어나 역사서술 체계에서 변두리화 된, 여성들이 향유해온 특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 양식으로서 구술, 이야기, 서간체 등을 여성의 것만으로 전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문학사에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여성문학을 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리얼리즘적 전통 안에서 이런 특성들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통적인 문학적 장치들이 여성문학에서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인데, 시의 주제의식과 연관하여 시도되는 시의 미학과 창조적 언어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고정희는 여성 역사 쓰기라는 새로운 주제를 詩化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언어에 대한 성찰을 수행한다. 역사 비판에 관한 첫 번째 작품이 현재 언어의 부정(不淨)과 오염을 문제시하는 작품이었음은 생각해볼 만하다. 폭력과 억압으로 점철된 역사에 아첨하는 언어는, 그 언어가 존재

---

14) 김성례(1994), 18쪽.

하는 역사의 부패 속에서 탄생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를 상상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언어를 상상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어여쁜 말들을 고르고 나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나고 미운 말  
건방지게 개성이 강한 말  
누구에게나 익숙치 못한 말  
서릿발 서린 말들이란 죄다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보니  
남은 건 다름아닌  
미끄럼 타기 쉬운 말  
찬양하기 좋은 말  
포장하기 편한 말뿐이었습니다  
썩기로 작정한 뜻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도  
몹쓸 껍질이 숨을 수 있다면  
그것은 통과된 말들이 모인 글밭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서른다섯 해가 걸렸다니 원>

「현대사 연구 1 - 아름다움에 대하여」 부분

그동안 부패한 역사를 용인해 온 언어는 문제적 현실을 미끄러트리  
고, 부패를 찬양하고, 그렇듯하게 포장하는 썩은 말이었음을 깨닫는 시  
인은 이제 모나거나, 건방지거나, 서릿발 서린 말들의 글밭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문(詩文)이란 본디 선하기 때문에 / 추한 속세  
를 논해서는 안되고/ 민중 같은 말 따윈 말려 태워버려야 하고 / 아예  
뿌리꺼정 뽑아버려야 하고/ 참된 예술이란 어디까지나 / 우주나 영원이  
나 사랑이 근본이니 / 속세의 잡사에서 발을 떼야 한다”는 허위의식에  
저항한다. (「현대사 연구 10 - 경건주의 시인에게 쓰는 편지」) 고정희 시  
인에게 “아름다운 창조나 자유로운 상상이란/ 천한 이름 찾아내어 귀한



이름 만들고 / 죽은 맥 짚어내어 피를 통하게 하고 / 세계의 고통에 입맞추는 힘”으로 인식된다. 이는 바로 천한 이름으로 살아온 ‘여성’을 포함한 민중의 존재를 역사에 복원하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의 각성에는 ‘우주’, ‘영원’, ‘사랑’ 등의 공중누각 같은 추상어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언어에 대한 추구가 놓여 있어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근본을 따르고  
 무릇 만인평등이 삼라의 뜻이거늘  
 그러나 아직 낙관은 이르외다  
 무릎을 칠 만한 여남해방세상 시가  
 조선에는 아직 없는 듯싶사외다  
 천지의 정기를 얻은 것이 해방된 여자요  
 해방된 몸을 다스리는 것이 해방의 마음이며  
 해방된 마음이 밖으로 퍼져 나오는 것이 해방의 말이요  
 해방의 말이 가장 알차고 맑게 영근 것  
 그것이 바로 시이거늘  
 그런 해방의 시가 조선에는 아직 없습니다

『봄편지, 황진이가 이옥봉에게 - 이야기 여성사 1』 부분

만인평등을 꿈꾸는 시인은 남녀를 여남으로 명명하여 불평등한 현실을 뒤집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언어를 ‘詩’로 인식하면서, 이 땅 조선에서 해방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해방 출사표』는 해방된 여성 언어가 시로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 억압의 역사를 은폐해 온 남성 중심의 역사 - 언어가 부패하고 죽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삶과 역사를 노래하는 언어와 시는 살아있는, 해방의 언어요 역사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다성적 목소리와 여성 역사의 중층성

역사란 과거-현재-미래가 대화한다는 점에서 항상 서로 다른 시·공간이 교차하고 다양한 언어들이 혼종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역사 텍스트가 갖는 이런 특성은 고정희의 시에서 강조되어 나타나 다성성의 언어나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사실(史實)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읽기가 가능케 한다.

① 황진이의 사랑법은 이러합니다  
사랑이 명월의 문전에서 원하되,

② 명월이 만공산하니  
흐르는 벽계수가 쉬어갈까 하노라

명월이 원을 받아 답하되,

③ 흐르는 벽계수에 명월이 잠길손가  
머무는 바다에 명월이 잠기도다

이리하여 그리움이  
푸른 물결 이룰 때  
물굽이에 명월이 내려앉아 속삭이되,

④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이렇듯  
흐름과 머뭇이 마주치는 그곳에  
나의 계약결혼이 있었습니다.

「겨울편지, 황진이가 이옥봉에게 - 이야기 여성사 1」 부분

위의 작품은 황진이의 진보적 사랑법이 계약 결혼의 선택으로 이어졌음을 드러내는 구조로 짜여 있다. 인용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진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나의 계약 결혼이 있었다’는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 앞부분부터 그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다양한 텍스트와 목소리를 교차시키면서 보여준다. 자세히 읽어보면 ①에서 ④에 이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물론 그들의 욕망 역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에는 시적 화자, ②에는 벽계수 ③ ④에는 명월이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서사과정을 반영하는 한편,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극적 특성을 만들기도 한다. 작품이 갖는 이런 구조적 특성을 통해 황진이의 시조 ④가 창작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진이와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런 텍스트의 특성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읽을 수 있다.

덧없고 덧없는 일이어라  
 권력의 돌계단에 희생된 여자들  
 사랑의 숨결로 창과 칼 막았건만  
 나라의 영웅들은 싸움으로 망하네  
 기러기 되어 세상을 등지려 하나  
 만남과 이별의 자취가 날 부르네

서시가 부르는 이 노래 속에서 나는 한 나라 흥망의 제물로 바쳐진 모든 여인들의 통곡을 듣사외다. (중략) 조선이라 해서 이와 다를 바 있는지요 원나라에 바쳐진 고려 여자들, 왜정 치하에 바쳐진 정신대 여자들, 외세 자본주의에 바쳐진 기생관광 여자들이 한반도 지사주의 축대가 아닌지요 권력노예 출세노예 산업노예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이 어찌 나라 재앙 원흉이 아니리카

「월나라 여자 서시, 이옥봉이 황진이에게 - 이야기 여성사2」부분

위의 작품에서는 화자인 조선 이옥봉의 목소리로 월나라 서시의 노래가 인용되고 있는데, 이옥봉은 이 노래와 조선, 고려, 현대 여성들의 애환

을 겹쳐 놓는다. ‘나’라고 인용될 때 그 인물은 ‘이옥봉’인데, 어느새 이 목소리는 현재 시인의 목소리와 겹쳐져 역사의 시·공간을 교차하고 있다. 이는 시·공간이 바뀌어도 여성 삶의 질곡은 같은 무게로 계속 덧씌워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시인은 “20년 동안 무심히 까발려진 한강에서 / 사내들은 모래에 삽질을 하고/사대문 안에서는 / 허울 좋은 보도들이 / 시골 풍년장치와 놀아나는 시월, / 어인 일인가 / 조선국 충렬 왕조에 공출나갔던 / 고려 여자들이 돌아오”는 환영을 본다. (「현대사 연구 14 - 가을 하늘에 푸르게 푸르게 흘러가는 조선 여자들이여」)

한편 텍스트의 교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일종의 패러디<sup>15)</sup>로 논의된 특성에 주목해보면 이 작품은 텍스트의 겹침,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원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비판, 해체하는 패러디 텍스트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해동 조선의 딸들이 일어섰도다  
 위로는 반만년 부엌데기 어머니의 한에 서린 대업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작금 한반도 삼천오백만 어진 따님 염원에 불을 당겨  
 칠천만 거래의 영존이 좌우되는  
 남녀평등 평화 민주세상 이룩함을  
 여자 해방 투쟁의 좌표로 삼으며  
 여자가 주인되는 정치 평등 살림평등 경제평등을 바탕으로  
 분단 분열 없는 민족 공동체 회복을  
 공생 공존의 지표로 손꼽는다

「여자해방을 투쟁을 위한 출사표,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 - 이야기 여성사 4」부분

위의 작품은 가부장제-남성-민족 중심의 언어로 쓰인 ‘국민교육헌장’을 원텍스트로 하여 그 위에 여성의 언어를 덧씌우고 있다. 즉 과거 남성

15) 송명희(1996), 141쪽.

의 관점에서 쓰인 텍스트와 현재 여성의 시각으로 새로 쓴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과거-현재, 남성-여성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독자들은 패러디 텍스트를 읽고, 이 작품이 남성 중심의 민족과 역사의 언어로 쓰인 ‘국민교육헌장’을 문제 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시인은 반쪽만의 공동체를 진정 남녀 공존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남녀 평등의 민주세상을 이룩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들은 이런 세상을 얻기 위한 출사표를, 남성이 만들어 온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 3. 서정 - 서사의 경계와 시학적 특성

‘현대사 연구’, ‘여성사 연구’, ‘이야기 여성사’ 등의 시편들은 모두 그것이 사(史)인 한, 일정한 에피소드, 이야기, 사실 등을 전제한다. 따라서 시편들은 자연스럽게 서사적 특성을 갖는다. 이야기 여성사에서는 특히 여성의 삶이 본격적으로 서술되는데, 이런 특성은 서정시에서 서사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 일반적으로 서사성을 도입한 서정시에서는 묘사의 측면은 약화되고 서술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서정시에서 서사성의 도입은 리얼리즘 시의 전통이 되어 왔다.<sup>16)</sup> 주관적인 정서를 압축적으로 토로하는 서정시 양식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문학사에서 1920년대 단편서사시를 비롯하여 서사성의 문제는 항상 현실을 담보하려는 서정시의 장르적 확장을 의미했다. 고정희 시의 경우도 민중 및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형상화는 내면의 서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를 도입하여 여성 삶의 생생한 모습을 드러내고 여성적 의미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 시는 삶의 장면들을 리얼하게 반영함으로써 서사적 흥미와 함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

16)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93쪽.

의 경험이 시간의 지연 없이 직접 전달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의 진실성이 쉽게 전달된다. 고정희의 시는 역사가 가진 이야기, 시인이 선택하는 여성 삶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학적 특성을 갖는다.

### 1) 서간체와 정서적 유대감의 획득

시 작품 안의 화자와 청자의 존재는 그들이 특정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문학 자체가 서간문적 성격과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간문의 특성은 무엇보다 수신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간문의 특성이 여성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작가의 의도와 연관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서간문은 원래 교환을 목적으로 쓰이지만 ‘이야기 여성사’ 연작에서 서간문 형식은 예술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야기 여성사 1-4까지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라는 구조가 보이며, 이 중 이야기 여성사 1의 경우에는 소재목들에 봄에서 겨울까지의 네 계절의 편지임이 밝혀지고 있다. 수신인을 지칭하는, ‘이자매’(이옥봉), ‘경번당 허자매’(허난설헌) 등이라고 직접 부르든가, 이옥봉이 황진이의 편지를 염두에 두고 ‘옥서’라고 표현하는 것, 또 사임당이 자신의 편지 쓰기를 ‘꾸밈없는 속이야기 봉하다’라고 비유하는 것 등을 보면 1-4까지의 작품이 서간문의 형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시에서는 메시지가 독자에게 감응력있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사적인 편지글체의 메시지 전달 방법이 효과적이며 특히 소설이 아닌 시에서 복잡한 이야기의 구조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서사구조를 포용할 수 있는 서간체 화법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글쓰기에서 서간체는 여성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형식으로 여성 상호 간의 의사 소통과 여성의 내면 경험과 정서를 드러내는 주요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 화자를 내세운

서간체 화법의 경우는 시에서 진술되는 내용을 수신자인 독자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조선 한반도 여자들은/안팎으로 힘이 세지고 슬기로워/학식이나 주장이나 실천능력 어느 면인들/남성에 견줄 바가 아니라지요?” “얼마나 학수고대했던 세상 입니까” (『봄편지, 황진이가 이옥봉에게 - 이야기 여성사 1』)라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 현실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sup>17)</sup>

고정희 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특성은 문학사에서, 메시지 전달이 중시되던 리얼리즘 시의 경우 서간체 화법과 여성화자의 사용을 통해 시를 창작했던 사실과도 관련된다. 즉 시인들은 이념적인 내용의 감응력을 강화하는데, 여성화자나 서간체 화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정희의 작품 역시 여성 화자를 내세운 서간체 화법을 통해 여성의 역사적 현실과 여성주의적 이념을 정서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아아 그리고 오늘날  
생존권 투쟁에 피뿌리는 딸들이여  
민족민주 투쟁에 울연한 딸들이여  
무엇을 더 망설이며 주저하리  
다 함께 일어나 가자  
남자들의 뒷담이는 이제 끝났도다  
우리가 시작하였고 그대가 완성할  
해방 세상의 때가 임박하였도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  
여자 해방 투쟁 드높은 신명으로  
언념들의 어진 땅 어진 하늘 되살려 옴이니

『여자해방을 투쟁을 위한 출사표,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 - 이야기 여성사 4』부분

17) 실제로 고정희 시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지인들과 자주 교환했다고 한다. 고정희의 서간체는 시인의 현실적인 삶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채택된 형식적 특성으로 보인다. (조형 외 엮음,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또 하나의 문화, 1993 참조)

특히 작품 안에서 화자가 시의 이야기를 듣는 수신자에게 ‘우리’임을 강조하며,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 수신자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게 한다. 위의 작품에서는 수신자를 ‘해동의 딸들’이라는 복수로 상정하고 있다. 이때 해동의 딸들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과거 고려, 조선의 여성으로부터 현재 매관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밖, 현실의 독자까지 확장된다. 즉 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간체 화법은 시안의 청자(수신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작품 밖의 청자, 즉 독자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화자가 수신자를 상대로 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안의 내용은 과거이더라도 그것이 발화되는 순간의 시간성은 현재이므로 시가 담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감응을 높일 수 있다.

## 2) 장면 제시와 독자의 참여

소설의 표현 방식은 단적으로 말하기와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장황하게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여 ‘보여주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잘 드러내 주는 상황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실현된다. 고정희 시 역시 서간체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음은 화자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건을 기술한다기보다는 화자의 정서와 의식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또 흥미로운 것은 화자의 생각을 유보한 채 하나의 장면이나 대화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자란 결혼한 여자와

결혼 안한 여자가 있을 뿐이다?

가을이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시다

제삼세계 여자인권과 정의-평화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독신녀 두어 명이 끼여 있었습니다  
공식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를 이끌던 어느 정실부인께서, 돌연  
한 독신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봐요, 결혼은 저엉말 안할 꺼예요?  
내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중략)

짜잡아 궁지에 몰린 듯한 한 독신녀가  
진담 반 농담 반 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실부인과 독신녀 이야기,  
여자가 하나되는 세상을 위하여 - 이야기 여성사6」 부분

고정희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정실부인이라는 위상이 오히려 또 다른 여성 억압의 단초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데, 위의 작품에서는 독신녀와 그를 걱정하는 정실부인들의 대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또 결혼을 통해 여성이 성숙한다는 편견이 갖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진술 방식은 이 상황이 인위적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화자가 그림을 그리듯이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자력으로 스토리를 발견하고 이야기의 공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독자, 주체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시인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독자들이 그 상황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얼마나 문제적이고 또 넌센스한 것인지 직접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 3) 여성 주인공의 개성과 역사성

『여성해방출사표』에 실린 ‘이야기 여성사’에서 역사 앞에 수식어 ‘이야기’라는 표현은 역사에서 무게감을 빼고 쉽게 역사에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혹은 주체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전통적으로 이야기의 세계는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이 살아가는 시·공간 속에서 구현된다.<sup>18)</sup> 따라서 이야기에서 인물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야기 여성사 1-4장까지는 역사를 살다간 특정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인물이지만 한편으론 텍스트를 이끌어 가는, 일정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 화자이기도 하다.

서정시에서는 시인이 자신과 구별되는 제 3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배역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sup>19)</sup> 이같은 시 형식은 시인이 다양한 개성을 창조해서 자신이 창조한 개성으로 하여금 시의 내용을 진술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시적 진술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배역시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된 시적 개성에 대해 시인이 거리를 유지하여 시적 개성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배역시가 갖는 이런 특성은 고정희 시의 주인공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의 단서를 제공한다. 황진이, 이옥봉, 신사임당, 허난설헌, 남자현, 구자명 등 실제의 혹은 가상의 인물들은 고정희의 역사 시편들에 등장하여 시인 대신, 가상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시인의 내면의 고백, 즉 ‘나’의 직접 발화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 설정을 통해, 그것도 역사적 인물의 입을 통해 여성 삶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작품의 내용에 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즉 배역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특정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농축되어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개별 여성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여성 공동체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8)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4, 262쪽.

19) 오성호(2006), 367쪽.

그러나 고정희는 역사 속 여성 인물의 비범함이나 영웅적 면모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난설헌은 자신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현모양처적 삶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문학적 재능으로 현실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고정희는 인물을 통해 한 여성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겪는 갈등과 고통의 생생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삶의 개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처럼 여성의 삶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는 역사와 문학, 서사와 서정의 경계 부분에서 새로운 창조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혹자는 난설헌을  
하늘이 낸 시인  
하늘이 낸 천재  
하늘이 낸 절세佳人이라 하지만  
아니외다 아니외다 아니외다  
곤륜산맥 황하에 뉘을 늑헌들  
이승의 규방 아자문에 자지러진  
삼한삼원의 서슬 아직  
청초 우거진 골에 푸르렀으니

하늘은 내게  
천기를 다스리는 재능만 주시고  
시대를 주시지 않았더이다  
하늘은 내게  
사랑에 대한 갈망만 주시고  
인연을 주시지 않았더이다  
하늘은 내게  
산고의 쓰라림만 주시고  
모성의 열매를 주시지 않았더이다

「삼한삼원(三恨三怨)의 서슬 청초 우거진 골에 푸르렀으니,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 - 이야기 여성사 4」 부분

허난설헌의 목소리를 통해 그의 삶에 관해 진술하는 위의 작품에서 독자는 ‘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늘이 낸 시인, 하늘이 낸 천재, 하늘이 낸 절세가인이라는 세상의 평가 이면에 놓인 허난설헌의 고통과 고독의 목소리는 절규하듯 울린다. ‘앓았더이다’라고 반복되는 결핍의 상황은 허난설헌의 삶이 갖는 무게, 그리고 고통의 진정성에 읽는 이를 참여시킨다. 서정시가 가진 내면의 울림과 깊이는 허난설헌이라는 시적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의 언어로 진술된 그 삶이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역사를 통해 여성-인간 삶의 역사적 국면으로 확장 인식되는 순간 독자는 시와 역사의 경계에서 깊이와 넓이를 가진 시의 언어와 마주하게 된다.

이런 시작(詩作)은 만인의 인물, 만인의 삶을 기록한 고은의 ‘만인보’와 비교할 때 차이를 갖는다. 고은의 만인보는 만인을 바라보는 작가의 일정한 시선이나 관점이 강조되어 인물의 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고정희의 시는 인물 자체의 목소리가 따로 존재하여, 그의 생각으로 작품의 내용이 진행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개성과 진실성, 그리고 역사성을 확보한다.<sup>20)</sup>

#### 4. 여성 역사의 전망과 고정희 시의 문학사적 의의

여성사가 여성의 관점을 통해 기존 역사 서술이 지향해온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미래 가치, 대안 가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사에서는 여성이 그간 침묵하고 억압받아왔던 수난사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역사 속에서 선택적으로 삭제된 주체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을 기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성찰 속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혹은 여성적 가치가

---

20) ‘이야기 여성사’의 경우 그러하고 ‘현대사 연구’ 연작에서는 작가의 관점으로 진술되고 있는 작품이 다수이다.

중심이 되는 미래역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고정희 시인은 여성 억압사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질곡을 딛고 올라선 여성의 힘에 주목하면서 역사 속에 묻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성들의 반지 헌납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반지뽑기부인회 취지문 - 여성사 연구 2」는 “우리 여자의 힘 세상에 전파하여/남녀동등권을 찾을 것이니 / 대한의 여성들이여,/반만년 기다려온 이 자유의 행진에 / 삼종지덕의 가락지 벗어던져 / 새로운 세상의 정점다리 괴시라” 라고 하면서, 공적인 분야에서 배제되어 가정의 활동에만 국한당해 온 여성의 현실, 국권회복에 남성과 똑 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여성주체 의식, 가부장제의 구습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는 행위가 여권 획득의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 등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고정희는 역사적 사실 속에 당대 여성들의 어떠한 진보적 사유가 담겨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sup>21)</sup> 이외에도 ‘남자현’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성이 대한여자독립원이 되는 과정을 시화하기도 하는데, (「남자현의 무명지 - 여성사 연구 3」) 이런 작업들은 가부장제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수많은 여성 주체들에 대한 애도와 흠모를 의미한다.

딸들이여  
그대들이 취해야 할 세 사람  
여자 제갈공명이 평등 세상 다림줄 놓기 위하여  
동아시아로 파송되었사외다  
여자 율곡이 평등 정치 주춧돌 세우기 위하여  
동아시아로 파송되었사외다  
여자 관음보살이 생명의 강 일으키기 위하여  
동아시아로 파송되었사외다  
보통 여자들로 태어난 그들을

---

21) 정효구(1999), 69-70쪽.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는  
 그대들의 뿔이어야 할 것이외다  
 이에 오등의 나아갈 바를 밝혀  
 조선여자 해방투쟁을 위한 출사표를 적어두는 바입니다

「여자 제갈공명이 동아시아에서 깃을 치는 이유,  
 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 - 이야기 여성사 4」부분

이런 의미에서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제갈공명, 여자 율곡, 여자 관음보살은 가부장제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끌 어갈 수 있었던 여성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런 역사에 대한 자각이 여성 해방의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그 역사를 시인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걸어갔고 / 우리 이모와 고모가 걸어갔고 /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 내일은 우리 딸들이 가야 할 이 길”로 인식한다. (「무엇이 그대와 나를 갈라 놓았는가,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 - 이야기 여성사 6」부분 )

그리고 미래 역사가 추구해야 하는 주요한 가치로 ‘여성-어머니’를 설정한다.

여자 속에 든 어머니가 매를 맞는다  
 여자 속에 든 아버지가 매를 맞는다  
 여자 속에 든 형제자매지간이 매를 맞고 쓰러진다

22) 정과리는 여자 율곡 등의 명명에서 텅빈 남근에 대한 욕망을 읽게 된다고 지적하는데, (「자신을 부르는 소리」, 『여성해방출사표』 작품 해설, 동광출판사, 1990, 41쪽.) 이런 평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명명의 전략은 여성을 남성의 자리로 올려놓으려는 의미라기보다는, 남성이 지식과 권력을 독식하는 시대에는 그런 사회 속에서 배제된 여자 율곡 역시 존재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즉 시에서 율곡은 단지 남성지식인의 대표명사일 뿐이다. 이런 인식은, 버지니아 울프가 셰익스피어와 재능 있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 즉 사회문화적으로 작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여성작가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솔, 오진숙 옮김, 1996, 90-93쪽.)

여자 속에 든 할머니가 매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린다  
 여자 속에 든 하느님이 매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비수를 쫓는다  
 여자 속에 든 한 나라의 뿌리가  
 매맞고 피흘리고 비수를 쫓으며 읊하고 죽는다

「매맞는 하느님 - 여성사 연구 4」 부분

고정희는 위의 시에서 여성 억압의 역사가 곧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억압의 역사임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죽음은 삶의 가치와 원리로 비유되는 ‘하느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상한다.<sup>23)</sup> 그런데 다음의 시에서는 그 자리에 ‘여성-어머니’를 앉혀 놓는다.

아아 그리운 어머니  
 내게 최초로 혈육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작별하는 뒷모습의 쓰라림을 알게 하신 어머니는  
 그러나 내 마음이 식었을 때 찾아와 주시는  
 모닥불이요 내 가슴 속에 숨어 있는  
 노여움의 칼날  
 반역의 칼날을 뽑아  
 푸른 용단을 빚으시는 손입니다

「따순 밥 정을 담은 어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 이야기 여성사 7」 부분

고정희가 상상하는 여성-어머니는 인간에게 열정을 일깨우는 모닥불이기도 하고, 노여움과 반역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어느새 부드럽고, 푸른 평화의 용단으로 만드는 마술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 어머니들은 일곱

23) 하나님이라 아니라 하느님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정희의 시에는 기독교적 상상력이 많이 쓰이지만, 그는 기독교적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주재하는 절대적 가치나 원리, 힘으로써의 하느님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 하느님 역시 미래의 대안 가치로 설정된다.

달 된 아기를 돌보며, 간밤에는 시어머니 약시증을 들고,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잠을 헌납하면서도 일터로 나가는 우리 동네 구자명씨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다. 그들 여성의 힘은 자본주의적 일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죽음같은 잠을 향하여 거부와 화살을 당기고 있다(「우리 동네 구자명씨 - 여성사 연구 5」)

이처럼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특성들은 가부장제가 어머니에게 덧씌워 온 모성 신화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며, 또 남성적 가치와 대비되는 여성적 가치에 대한 편향 역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여성주의와 여성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배제되어온 여성적 가치와 문화를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적 원리에 집중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정희가 강조하려 한 궁극적인 것은, 이런 포용과 희생의 가치가 여성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해방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모든 인간의 삶의 원리와 가치라는 사실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정희의 역사 시편들은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서 여성 역사를 복원시킴으로써 남성 중심의 역사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나아가 여성 - 어머니의 가치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적 가치의 창조성과 미래 역사의 전망과 상상을 보여준다. 고정희의 역사 시에 드러난 역사와 언어에 대한 실천적 감각과 열정은 여성사가 부재하고, 또 남성-기득권 중심의 역사 - 언어 서술이 주를 이루던 1980년대를 넘어 21세기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문학이 추구해야 할 해방과 창조라는 상상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 기본자료

고정희, 『고정희시전집』, 또 하나의 문화, 2011.

## 참고자료

-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경수 외  
지음,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1-33.
-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  
성문학연구』 2호, 1999, 135-166.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4.
- 남기혁, 「민중공동체의 서사시적 탐색 - 『만인보』 『백두산』 론」, 『시와 시  
학』 제13호, 1994, 93-108.
- 송명희, 「고정희의 페미니즘시」, 『비평문학』 제 9호, 1996, 137-164.
- 오성호, 『서정시의 이론』, 실천문학사, 2006.
- 이소희, 「“고정희”를 둘러싼 페미니즘 문화정치학」, 『젠더와 사회』 제6  
권 제1호, 2007, 9-39.
- 이진옥, 「여성사 연구의 현주소 그리고 희망」, 『역사와 경계』 66호, 2008,  
197-211.
- 임현영, 「『만인보』에 관한 소론 -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시와 시학』 제  
29호, 1998, 130-142
- 정과리, 「자신을 부르는 소리」, 『여성해방출사표』 시집해설, 동광출판사,  
1990, 133-143.
- 정현백,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역사교육』 제 102호, 2007,  
163-206.
- 정효구, 「고정희론 -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1.10, 217-

234.

정효구, 「고정희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인문학지』 제 17호, 1999, 43-86.

조형 외 엮음,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 여성해방문학가 고정희의 삶과 글』, 또 하나의 문화, 1993.

천성림, 「새로운 여성사 : 쟁점과 전망」, 『역사학보』 제 200집, 2008, 131-164.

가다 러너,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 푸른역사, 2006.

마단 사럽 외 지음, 『테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현규 편역, 인간사랑, 1994.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오진숙 옮김, 솔, 1996.

〈Abstract〉

The Extension of Lyricism and a History  
in Goh Jung Hee's Poems

Kim, Jinhee  
(Ewha Womans University)

Goh Jung Hee's poetic survey of women's history is an important undertaking that highlighted the place of women in literature and history. Goh's historical poems a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as a history in that they attempted to reconfigure the history of women; moreover, it is critical that we consider this history within a literary framework as it is reconstructed through the genre of lyrics. This essay defines the aesthetic features and the feminist critique of Goh's serialized poem, "The Stories of Women's History."

Recognizing that critiquing the corruption of power and the pollution of language was related to new historical views, Goh tried to create lyrics for liberation that embodied the concepts of human freedom and equality. To this end, she employed various literary devices; first, Goh demonstrated how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converse with one another in history and effectively revealed the diverse stories of women's lives by way of polyphonous voices and intertextuality. In delivering these stories, Goh employed the epistolary style as well as the narrative strategy for presenting scenes in order to heighten the readers' sense of interconnectedness and to foster their participation. Furthermore, she showed at once the personality and the historicity of her characters as a way to help readers experience a new creative

power on the border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and between epic and lyric.

Ultimately, Goh's historical poems criticize the male-oriented history at the boundary of history and literature, and by placing value on the principle of life, particularly that of women-mothers, her poems offer a creative outlook and imagination for the future.

**Key words** : Goh Jung Hee, historical poems, women-mothers. epistolary style, feminist literature

논문접수일 : 7.8 / 심사기간 : 7.20~8.5 / 게재확정일 : 8.10
----------------------------------------------